

철학사

67 실존주의 입문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그리고 실용주의의 몇 가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버포드 대학에 재직 중인 리처드 번스타인은 예일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실용주의에 대해 많은 글을 썼고, 자신의 사고에 실용주의적 관점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면서 실용주의의 다섯 가지 공헌을 제시했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이것들이 그의 사상에 대한 기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기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일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주의에 대한 거부인데,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실존주의 전통에도 속할 것입니다. 데카르트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확실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토대에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려는 기초주의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여는 오류가능론입니다.

오류가능론은 모든 인간의 판단은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논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성은 없다는 견해입니다. 물론 이는 기초주의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류가능론을 수용하는 실용주의자는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이 자기 수정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설과 같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실험하는 과정은 성급한 확신, 독단주의 등을 자연스럽게 바로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열거한 세 번째 공헌은 자아의 사회적 특성입니다. 즉, 개인을 고립된 원자론적 관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 이론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사회적 관계의 복합체 안에 있는 하나의 위치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는 특히 듀이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헤겔의 영향을 받은 어떤 사조에서든 우리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8세기의 원자론은 헤겔식 역사 속에서 개인이 출현한다는 관점에 의해 거부됩니다. 헤겔의 구체적 보편자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개인은 과거의 보편적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실현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보편성과 특수성이 개인 안에서 결합되는 것입니다.

헤겔의 정반합, 즉 보편자, 특수자, 개인 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보편적인 가능성들이 사회 안에서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한, 개인 또한 그러한 관계의 형태를 띠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상황도 고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전체 관계망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관계,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등등. 따라서 그러한 개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 삶과 인간 본성의 우연성이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삶 자체가 온갖 것들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나 또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비롯한 온갖 것들에 좌우됩니다. 듀이의 진화론적 자연주의에 따르면 인간 본성 역시 진화적 과거에 따라 결정되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번스타인이 실용주의에 기여한 다섯 번째는 바로 다원주의를 수용한 점입니다.

철학적 다원주의, 윤리적 다원주의, 그리고 종교적 다원주의는 지난주 컨퍼런스 이후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접하셨을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하며, 그중 어느 하나를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안적 입장에 대한 상대주의가 존재합니다.

경험적으로 검증된 믿음이라면 예외입니다. 하지만 물론, 실험적 검증조차도 어떤 입장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용적인 검증은 후건 긍정의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가설적 삼단논법에서 "A이면 B이다"라고 말할 때, "B가 옳으니 A이다"라고 답한다면, 이는 논리적 오류인 후건 긍정의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나는 젖을 것이다. 나는 젖고 있으니 비가 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요. 누가 저한테 호스로 물을 뿌릴 수도 있었잖아요. 젖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실용주의적 검증은 A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참일 확률을 어느 정도 밝혀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용주의자는 확실성에 관심이 없고, 전통적인 의미의 참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 남고, 다원주의도 남는다. 이것은 실용주의가 일종의 포스트모더니즘, 즉 반실재론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확실히 그 이후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리처드 로티를 언급했는데, 그는 현대 사상에서 반실재론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이죠. 번스타인은 전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중 처음 세 개 반에서 네 개 정도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기초주의, 오류가능성, 자아의 사회적 성격, 인간 삶의 우연성 등을 거부합니다. 제가 실용주의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물론 그 철학적 자연주의, 즉 근본적인 자연주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도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이것은 철학적 자연주의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결과 중 하나이다. 가치의 소재는 결국 개인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달려 있다.

듀이는 그 점에 대해 명확히 밝힙니다. 그는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내재적 가치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내재적 가치의 상실은 우려됩니다. 내재적 가치가 아예 없다면 말이죠.

아니, 그 말 취소할게요. 내재적 가치가 존재한다면, 상대적 가치에만 관심을 두는 실용주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건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관계는 단순한 실용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될 겁니다.

내재적 가치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두 번째 어려움으로 이어지는데, 실용주의는 내재적 가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신념이나 관념의 상황적 가치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이 수많은 개별적인 상황들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각각의 상황은 서로 다르죠. 마치 그 자체로 원자론적인 구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인간 존재에 내재된 질서를 간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보편적인 상황의 종류, 보편적인 욕망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가치 유형들이 존재하며, 전체의 통일성 안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내가 불만을 갖는 점은 듀이의 이론이 이러한 상호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주의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문제 상황 유형,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와 가치가 존재한다면, 이는 인간 존재와 자연 전반에 걸쳐 흐르는 일종의 목적론을 시사합니다. 즉, 우리가 단지 개별적인 문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 전체의 목표, 즉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뤄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핵심은 자연주의가 내재적 가치를 부정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상호 연관된 전체 속에서 내재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로고스 구조와 목적론이 생겨납니다. 이는 실용주의적 방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영역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관점에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실용주의에 대해 오랫동안 높이 평가해 온 또 다른 점은 이론과 실천 사이의 본질적인 연관성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사상은 이론을 오로지 이해를 위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응용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죠. 제가 듀이에게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이론적 탐구의 자연스러운 자극원,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서식지는 바로 삶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즉, 이론적 사고의 흐름은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촉발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은 주로 이론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에서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실천이 이론으로, 이론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피드백 순환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철학의 역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중요한 쟁점과 이론적 발전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죠. 이론적 방향을 자극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론이 실천에 다시 반영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듀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을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이네요.

눈이 반짝이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브라이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도 보이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두 번째 주제에 너무 집중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죠.

자, 앞으로 2주 동안 우리는 실존주의와 현상학을 다룰 겁니다. 이 둘을 혼동하지 마세요. 현상학이라는 용어는 헤겔과 관련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학이 입장이 아니라 방법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상학은 철학적 이론이라기보다는 서술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술적 방법은 20세기 실존주의자들 중 일부에 의해 차용되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에 대한 우리의 소개는 19세기 키르케고르와 니체의 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가드너 선집에 수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 두 사람의 책을 읽게 될 텐데, 맞죠? 제가 논문 주제문을 작성 하라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

그리고 앞으로 읽어야 할 책들이 산더미 같은데, 방금 다른 과목 시험지를 읽는 데만 여덟 시간을 썼어요. 게다가 이번 주에는 선생님의 서평까지 읽어야 한다니...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논문 주제문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스스로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꼭 읽어보세요. 흥미롭고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 글들을 참고할 겁니다.

실존주의는 주로 유럽에서 시작된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였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실존주의는 20세기 전반에 걸쳐 꽃을 피운 철학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저는 60년대의 활동가적 분위기가 실존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관적인 실존주의자가 삶은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다고 말했던 반면, 60년대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와 목적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맥락에서 실존주의는 점차 쇠퇴해 온 것 같습니다. 다시 부활 하지는 않았죠 . 하지만 실존주의는 본질적으로 이론적 입장이나 이론, 교리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사상 학파라기보다는 관심의 초점, 즉 인간 존재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주의이지 실존주의가 아닙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존재에 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 존재의 문제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와 듀이의 글에서 접했던 몇몇 표현들이 매우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경험. 존 로크가 말했던 추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자의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 존재한다는 의식 말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무의미하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존재.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러한 실존주의적 관점은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고찰. 부서진 세상 속 인간의 존재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세상에서 자의식적으로, 내면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황폐한 장소들. T.S. 엘리엇. 그리고 바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자의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요즘엔 너무 흔한 일이라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혹시 카메라 앞에서 자의식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전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무시하면 되거든요.

지금처럼 내가 그것과 대화할 때는 예외지만. 하지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느끼는 자의식. 맞아.

네. 시아버지를 모셨을 때가 기억나요. 관이 내려진 후 어두컴컴한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다음은 내 차례구나' 라고 생각했죠.

제 세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는 단순한 자각을 넘어선 일종의 자의식이 생겼어요.

감정이나 불안이 없는 자의식적인 인간 존재는 없으니까요 .

혹은 그와 비슷한 어떤 특성들. 오늘날 우리가 인간 존재의 실존적 특성이라고 부르는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 선집의 제목들을 보면 공포, 불안, 우울과 같은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들은 우리 자의식적 존재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비전이 바로 신입니다. 우리는 낭만적인 세계에 사는 낭만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물든 에덴동산처럼 말이죠 .

아니, 낭만주의는 사라졌어. 굳이 말하자면, 실존주의는 낭만주의가 썩어버린 거지. 호박이 썩어버린 것처럼 말이야.

보세요. 자, 이제 신데렐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감정은 기술 사회에서 더욱 증폭됩니다. 산업 혁명 이전에는 실존주의라는 개념이 생겨났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된 기술 사회에는 비인간화, 소외와 같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 네, 그건 마르크스 철학에서도 다루어진 주제 였죠 .

그와 키르케고르는 동시대 인물이었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졌지만, 같은 문제, 즉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짓누르는 산업화된 사회에서 자의식을 가진 존재는 가치 없는 사실의 세계 , 의미 없는 존재의 세계, 본질 없는 존재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그리고 이 시기의 독일 작가이자 실존주의자라기보다는 현상학자에 가까운 막스 셸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문제적인 존재가 된 최초의 세대입니다.

그는 자신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 이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알고 싶어 한다.

오시나요 ?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부서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자의식. 바로 그런 상황이죠.

실존주의자의 접근 방식은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존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망치로 얼굴을 씻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

그건 잘못된 도구입니다. 실존주의자는 이성의 보편적 규범에 호소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통처럼 인간 본성의 보편적 본질을 정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모든 문제에서 객관적인 초연함을 얻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아니, 오히려 그는 그 곤경을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묘사하고 밝히려는 거죠.

우리가 처한 이 혼란스러운 상황. 말하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려는 시도. 즉, 개인 존재의 이러한 실존적 특징들을 묘사하려는 것입니다 .

문제는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느끼는 주체라는 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든 내면성을 담고 있는 주제 말입니다 . 보세요. 제리 브라운의 '우리 국민' 조차 너무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내면성, 즉 그런 종류의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나' 입니다. 따라서 서술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실존주의는 19세기 초창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았다 . 둘 다 실존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어떤 형태의 실존주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전 시대 사상가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와 파스칼의 작품에서도 실존주의적 주제가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실존주의와는 다릅니다. 칸트의 영향이요? 네, 칸트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이죠. 아시다시피, 그 혁명은 우리가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존재이며, 세계에 맞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혁명으로,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내면에 지닌 모습에 맞춰 변화할 것이라는 관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가 강조했던 초월적 자아, 즉 초월적 예고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직관의 형식과 이해의 범주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아는 세상에 자신만의 구조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실존주의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영향이 있네요. 헤겔의 영향도 있고요. 네, 변증법도요.

자기의식이 전개되는 변증법. 정, 반, 합. 합은 새로운 반의 정이 된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자기 의식의 전개입니다. 물론 헤겔은 한 본질에서 다른 본질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증법을 사용 했습니다 . 이것은 이론적인 변증법입니다.

키르케고르에게 있어 그것은 실존적 변증법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구체성 속에서 우리는 정에서 반으로, 그리고 합으로 나아갑니다. 사르트르의 경우처럼,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합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르트르는 그토록 비관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사르트르의 『자아의 초월』을 읽게 되면, 어떤 세상에서든 자기의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의미를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식 그 자체를 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둘은 거대한 무(無)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고, 보고, 참여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통해 마치 새롭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변증법적 과정입니다.

칸트는 정반합의 과정을 직접성, 매개성, 직접성, 매개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그 다음 단계인 합을 제시하는데, 그 직접성과 매개성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헤겔의 현상학적 설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상학적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겔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 주인과 하인의 변증법을 명심하십시오.

자기 의식 의 변증법 같은 것이 흔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겔의 또 다른 주제로는 자유에 관한 문제 를 들 수 있겠습니다. 헤겔은 역사의 전반적인 과정은 자유의 절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자기의식의 발달은 그 자유의 절대화입니다. 실존주의자는 역사의 목적론을 버리고 자유의 절대화를 추구합니다. 바로 개인의 자유 말입니다

헤겔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절대적인 것의 일부가 아니라, 개개인으로서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실존주의자에게 있어 그 움직임은 존재에서 본질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존재에서, 아니, 존재, 만약 당신이 '존재'라는 단어를 '존재'라고 정의한다면, 생성을 거쳐 본질로 가는 것이죠.

아시 겠죠? 또 다른 종류의 존재, 대문자 B로 시작하는 존재 말입니다. 존재라기보다는 본질에 가깝죠. 예를 들어 하이데거는 이러한 단순한 존재를 'Verhandensein' (존재) 이라고 부릅니다 . 마치 다른 사물처럼 그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이죠.

보시다시피, 내면적 정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Verhandensein . 또는 원하신다면 Dasein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자인. 저기 있다. 바로 저기에 있다.

단순한 대상일 뿐. 존재와는 구별되는. 맞아,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점이지

용어는 제각각이지만, 핵심은 실존적 자기의식을 펼쳐나가며 진정한 존재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대략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실존주의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 종류에 따라 이러한 특징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실존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다른 실존주의 사상가들도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종교적인 사상가 중 한 명이고 니체는 무종교적인 사상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적인 인물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가톨릭 작가 가브리엘 마르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무종교적인 작가인 사르트르에게 너무나 혐오감을 느껴 스스로를 실존주의자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대신 '존재의 철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마르셀 말입니다.

아니면 개신교 신학자인 파울 틸리히나 유대인 철학자인 마르틴 뷔버 같은 사람도 있죠. 반면에 여기 무종교인들 중에는 사르트르나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분이 또 다른 구분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마르셀이나 뷔버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존재에 수반되는 의미가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너'라는 표현을 처음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대중화시킨 사람은 바로 뷔버입니다. 그는 기본적인 단어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나-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관계에서 추상화된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경험은 '나'라는 고독한 경험에 앞선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마르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물론 키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진정한 존재는 신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다.

그러니까 진정성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가학적이고 사디즘적이며 비종교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결국 모든 것에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의 대표작인 『존재와 무』에서 말이죠.

그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아니, 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온통 마조히즘과 가학적인 내용뿐이죠. 긍정적이고 보살핌이 있는 관계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현상학이 그것을 설명하고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설명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기적인 측면입니다.

그의 자서전인 『말들』은 상당히 많은 것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 외에도 사르트르에게는 그가 '기쁨(l'angoir)'과 '열정(le poursoir)'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의 변증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있다. '기쁨'은 말 그대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Le poursoir)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칸트의 사상과 비슷하지 않나요? 사물 그 자체, 나에게 있어 사물? 칸트적인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식을 가진 개인이 '나에게 있어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상이 본질적으로 지닌 완고함 때문에 항상 막혀 있죠 .
여러분 중에 사르트르의 희곡 <출구 없음>을 읽어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음, 아마 대여섯 분 정도?

나머지 여러분도 어서 하세요. 아니, 게으름뱅이라고 할 뻔했네요. 어서!
세상에, 당신들은 평생 뭘 하면서 살아온 겁니까? 한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견딜 수만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사진은 출구가 없는 방 안에 두 여자와 한 남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 모습입니다. 아, 알고 보니 문이 열려 있네요.
그들은 차마 방을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곳은 지옥을 극적으로 묘사한 곳이다. 이곳은 사후 세계다. 그들은 과거
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견뎌내야 합니다 . 서로 화해하려고 노력하죠. 두
사람이 꽤 잘 지내는 듯 보일 때쯤 , 세 번째 사람이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둘 중 한 명이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연극에서는 상대방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개인이, 그
상대방에 의해 자신의 욕망이 부정당하는 극적인 장면이 그려집니다. 바로
그것이 그 자체로 본질 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다가 연극의 마지막에 “
지옥은 타인이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해 볼까요?

연극의 끝. 합이 없는 대립 . 랑수아르 의 대립. 합성이 없는
라푸르수아르 .

이는 마르셀의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마르셀은 또 다른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희곡, '신의 사람'을 썼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
목사인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고, 딸은 가출 직전입니다. 상황
이 감이 오시나요? 위기가 폭발하기 직전,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한
신도가 아기를 안고 들어와 목사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구민을 돌봅니다 .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 이제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위해 살아 가야 해 . ”
방금 마르셀이 성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저는 <신의 사람>이 <출구 없는 방>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구 없는 방>에서 '나 자신만을 위한 갈망'이 드러나는
대신, <신의 사람>에서는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의미 있는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작품
사이의 대조는 흥미롭습니다 .

좋습니다. 키르케고르에 대해 몇 마디 해 볼까요? 아, 그리고 종교인 중 한 명은 러시아 정교회 신자인 니콜라스 바야예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다양한 유대-기독교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좋습니다. 19세기 중반 덴마크 사상가인 키르케고르는 헤겔 시대에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중심 주제, 그리고 후대 실존주의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 주제는 바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키르케고르에게 있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키르케고르는 계몽주의 시대의 인간관과 낭만주의 시대의 사물관 모두의 불충분함을 비판합니다.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그 어느 것도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 우리는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며, 외부적인 것들에 주로 의존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 우리는 창조적인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경이로운 존재인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그런 이미지들은 죽은 허황된 낙관주의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는 기독교인이 되는 두 가지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의 저서 『비과학적 결론 후기』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전개됩니다.

그 제목에는 그의 유명한 아이러니가 조금 담겨 있네요. 400페이지나 되는데, 후기라고 하기엔 너무 과하죠. 최소한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존주의자들이 18세기, 19세기 과학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깨닫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등등. 하지만 그가 말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두 가지 길은 객관적인 길과 주관적인 길입니다.

아시 겠죠? 객관적인 길이란 자연신학의 길이거나 역사적 증거의 길입니다 . 그런데 그가 그 길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그 길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사고의 우유부단함입니다. 논증과 증거라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반론이 존재 하죠 .

그러니까 항상 반론에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론에 대한 반론이 있고, 그 반론에 대한 반론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반론이 있고, 그 반론에 대한 반론에 반박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죠. 항상 해야 할 일이 또 생기고요. 50년대에 어떤 주제로 작은 책을 쓰려고 했던 제 친구가 생각나네요.

그는 계속해서 "아직 안 본 학술지에 실린 다른 논문이 있는데, 곧 나올 거야"라고 말하며 그때까지 미뤘습니다. 이제 92세가 되었네요.

그는 은퇴했고, 책은 결국 쓰여 지지 않았죠. 네. 키르케고르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19세기 독일 학자들의 경향이죠. 아시다시피, 『코끼리』에 대한 3권짜리 독일어 서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접근 방식은 결국 아무 데도 도달하지 못해요. 결코 끝나지 않죠.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연역 논리는 데카르트에 대한 직접적인 참조, 즉 절대적인 출발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역 논리는 보편적인 개념은 다룰 수 있지만 개별적인 존재는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역 논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닙니다. 삼단논법의 전제들 사이에 논리적 연결이 있으려면, 적어도 한 번은 그 논항이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고려한 논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객관적인 길은 우리에게서 열정을 빼앗아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냉정하고 차분하며 깨달음을 얻은 이성엔 우리에게서 열정을 빼앗아 가는데, 바로 그 열정만이 믿음과 사랑, 희망에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97쪽을 보면 키르케고르가 논리 체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많은 논리 체계가 가능합니다.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헤겔, 데카르트 등 대부분의 논리 체계가 가능하죠.

논리적 체계는 가능하지만, 실존적 체계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편적 진리로는 개개인의 존재라는 미끄러운 미꾸라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관적 경로는 다릅니다. 주관적 경로, 즉 내면은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 경로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거나 "나는 성육신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거나, "시간 속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뭔가 역설적인 것 같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주관적인 길은 열정적인 믿음과 감사하는 사랑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용어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는 진리가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점에 유의하세요. 그는 그것이 단지 당신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고 다른 곳에는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주관적인 것이 대중적으로 사용된다는 뜻도 아니고, 상대적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는 객관적과 주관적이라는 용어를 신이나 진리에 대한 개인의 관계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객관적이라는 용어를 진리에 대한 이성적인 관계, 즉 초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것 등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관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여기서는 자연 신학의 논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 몇 분이나 가드너의 생각을 떠올리셨습니까? 보이 스카우트의 모토처럼, 준비하십시오.

읽어 드릴게요 . 302페이지부터 읽어 드릴게요. 더 확실하게 이해하시려면 직접 다시 읽어보셔도 돼요.

302. 진리에 대한 질문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제기될 때, 성찰은 인식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진리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만약 그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만이 진리라면, 주체는 진리 안에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문제가 주관적으로 제기될 때, 성찰은 주관적으로, 즉 우리 존재의 모든 내면성을 동원하여 개인의 관계의 본질로 향하게 된다 . 그리고 만약 이 관계의 양식만이 진리 안에 있다면 , 개인은 비록 그가 진리가 아닌 것과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진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어떤 것들을 오해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관계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객관적인 경로와 주관적인 경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은 말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주관적인 관점은 말하는 방식을 강조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믿으며, 그의 외아들이시며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을 믿습니다. 등등. 이제 객관적인 진술은 "나는 이 모든 명제가 참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주관적인 진술은 "주님,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리를 객관적 불확실성이라는 주관적인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건 아니죠.

그것은 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가장 열정적인 내면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객관적 불확실성. 그것이야말로 현존하는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진실이다.

.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 다시 말해, 논리적인 확신이 부족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열정적으로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의 다른 대부분의 저술은 바로 이 점에 대한 성찰입니다. 이 열정적인 관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현상학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 사랑, 우울, 공포, 죽음 앞에서의 고통 등과 같은 개념들이 포함됩니다.

그럼 수요일에 거기서 다시 얘기해 보죠.